

2년 만에 무역적자, 자원가격 급등으로

2022/4/20 일본경제신문

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2021년도 무역통계 속보에 따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5조 3,748억엔 적자가 됐다. 무역적자는 2년 만이다. 적자폭은 과거 네 번째 수준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감소하고 화력발전용 연료 수입이 늘어난 2014년도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. 수출액은 23.6% 증가한 85조 8,785억 엔, 수입액은 33.3% 증가한 91조 2,534억 엔였다. 수출, 수입액 모두 사상 최대였다. 엔화의 달러에 대한 시세가 2020년도 평균의 1달러=106엔 4전에서, 2021년도는 111엔 91전으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크다.

수출은 철강이 62.7% 증가한 4조 1,363억엔, 자동차가 12.8% 증가한 10조 7,308억 엔이었다. 반도체 제조장치는 33.9% 늘어난 3조 5,606억 엔였다.

지역별로는 중국이 14.9% 증가한 18조 2,689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 미국 전용은 23.9% 증가의 15조 4,173억 엔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확산되기 전인 2018년도(15조 6,286억엔)에 임박하는 수준으로 회복했다. 수출이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반면 우크라이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더욱 늘어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. 원유는 수량 기준으로 4.6% 올랐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97.6% 늘어난 8조 155억 엔으로 늘었다. 액화천연가스(LNG)는 수량이 6.4% 줄었는데도 금액은 58.8% 증가한 5조 27억엔을 기록했다.

동시에 발표한 2022년 3월 무역수지는 4,123억 엔 적자였다. 적자는 8개월 연속이다. 반도체 등의 공급부족 여파가 줄면서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.7% 증가한 8조 4,609억 엔였다.

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.2% 늘어난 8조 8,733억 엔였다. 수출과 수입액은 모두 최고였다. 또한 외환시장에서 엔-달러 환율이 1달러=129엔대까지 하락하여 약 20년 만의 엔 하락, 달러 상승 수준이 되었다. 엔화 약세는 국내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어 수입액이 늘어 무역적자가 되기 쉬워지고 있다.